

별을 쏘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8. SUMMER vol. 017

별을 쏘다 ★

2018 SUMMER vol.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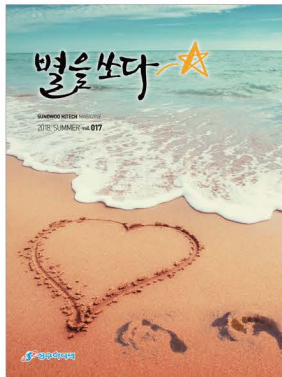
발행일, 2018년 8월 24일 (통권 제17호)

발행인, 이명근 사보기자,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성우하이텍 www.sw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줌 (Tel. 051-623-1906)



'심표'가 필요한 시간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INSIDE SUNGWO

04 Issue & News

08 Field Sketch 승부보다 소통과 화합의 축제 한마당 제15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12 New SUNGWO 베테랑들이 그려가는 '혁신'의 성우하이텍 반짝이는 아이디어, 변화의 발판이 되다 "제1회 가라쿠리 경진대회"

16 Ready Action 족구 경기의 절대 강자, 더 큰 도전을 꿈꾸다

SPECIAL THEME : 발

20 Art Story 삶의 궤적을 담다 -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22 Special Baseball 더 빨리 훔쳐라! 발야구의 백미, '도루'

24 Connect 꿈이 아닌 현실로 - 부산발 유렵행 열차

26 Interview 그 길 위에 내가 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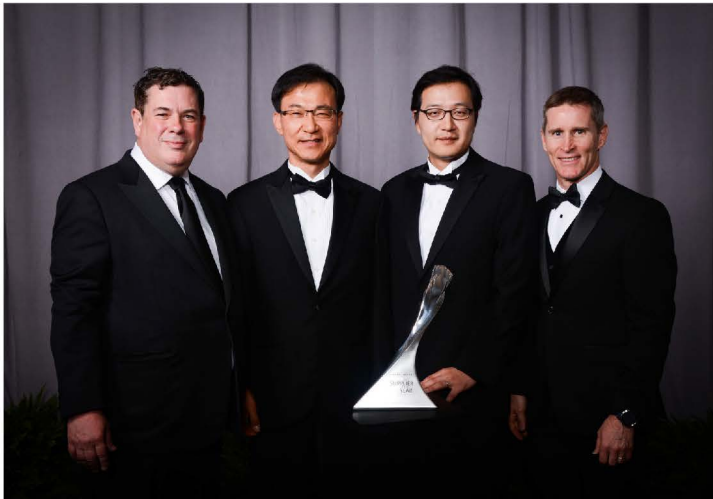


- 30 Photo Essay 걷기 좋은 전국 방방곡곡 도보길 함께 걸을까요?
- 34 SUNGWOON Family 세상에 디딘 너의 첫 번째 발자국

FUN SUNGWOON

- 36 Safety 39년 만에 폐기된 “무재해 운동”을 아십니까?
- 38 People 96명의 생명의 살린 위대한 선택
- 40 Movie 여름 더위 몰아낼 정주행 미드(영드)시리즈
- 44 Going 하늘 닳은 파란 바람이 불어오면 가을 축제 찾아 떠나요
- 50 Manners Makes Man 러시아의 비즈니스 매너
- 52 Tasty Road 더울수록 찾게 되는 한국의 전통빙과 - 달콤 얼얼한 팔빙수
- 54 Work and Life 일과 삶의 균형, 변화하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
- 57 Event 길 따라 맛 따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로드

(주)성우하이텍, GM 2017년 올해의 협력사상 수상



4월 19일/20일 양일간에 걸쳐 미국 Orlando 市 디즈니월드 EPCOT(Disney's Yacht Club Resort)에서 열린 GM 2017 SOY(Supplier Of the Year) 행사에서 (주)성우하이텍은 탁월한 품질과 긴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GM2017년 올해의 협력사 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북미 차종 개발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었고, 이를 GM에서 높이 평가하여 수상이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Steve Kiefer GM 부사장은 “북미에서 (주)성우하이텍의 적극적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성우하이텍 멕시코와 GMNA 간의 두터운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우혁신사관학교 1기 중간 발표회 개최



5월 31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성우혁신사관학교(SHiOTS, Sungwoo Hitech Innovation Officer Training School) 1기생들의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총 3개 조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발표회를 통하여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임직원들에게 선보였다. 격려의 박수, 열띤 토론이 이어져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명근 회장은 강평을 통하여 성우혁신사관학교 1기생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여 현장 역량 강화를 통한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관련 기사: 12p

제1회 가라쿠리 경진대회 개최



5월 24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제1회 가라쿠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달 여 간의 공모를 거쳐 총 2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이날 임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실시하였다.

이명근 회장은 강평을 통하여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며 고민하는 모습에 감사를 표했고, 한 번의 개선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중단 없는 개선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 혁신적 개선활동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회사가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관련 기사: 14p

ISO통합경영시스템 사후심사



6월 14일부터 7일간, 전사업장 대상 ISO통합경영시스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사는 ISO경영시스템 안정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사공장을 시작으로 금형공장, 코일센터, 아산공장, 정관공장 순으로 진행되어 서창공장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종결회의에서 한국표준협회 심사원들은 해당 경영시스템의 경쟁력 강화와 전사적 차원의 대응 체계 수립 등의 한 차원 도약을 주문하였고, 이어서 이문용 대표이사 시장은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사적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을 경주하자고 강평하였다.

부산고용노동청장, 서창공장 방문



5월 23일,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 유재식 양산지청장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실현하고 있는 성우하이텍의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역 사회의 고용·노동 이슈에 관하여 성우하이텍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직업훈련, 고용보험, 근로조건의 보호,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 산업재해의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 주관 안전캠페인 개최



7월 18일, 서창공장에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주관으로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준휘 양산지청장, 산재예방과장 및 감독관들이 서창공장을 방문하여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작업현장을 둘러보며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옥상정원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안전캠페인을 실시하며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번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캠페인을 통하여 임직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안전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 관련 기사: 36p

제15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성료



5월 25일, 서창공장 풋살 경기장에서 제15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본선대회가 개최되었다. 본선에서 결승까지 어느 경기 하나 손쉽게 끝나는 법이 없었고, 승부의 결과는 예측불허였다. 예년과 다른 우승자들도 많았고, 다양한 팀(반/본부)들이 골고루 좋은 성적을 얻어서 만족스럽게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작년에 이어 특별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양산시 탁구협회 소속 선수 2명(남/여)이 임직원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혼성경기를 펼쳐 임직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 관련 기사: 8p

아산성우하이텍, '2018 문경새재 스포츠페스티벌' 직장부 3위



7월 7~8일 이틀간 문경시 일원에서 개최된 '2018 문경새재 스포츠페스티벌 전국 직장인 및 동호인 축구대회'에서 아산성우하이텍 족구팀이 직장부 3위에 입상하였다.

문경시체육회와 대한직장인체육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 직장인 및 동호인 2,00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아산성우하이텍 족구팀은 2014년 창단 이래 연 2~3회 열리는 아산시 대회 우승을 휩쓸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순위권 입상을 이뤄내며 실력을 증명해냈다. 최강부 승격을 목표로 다양한 대회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아산성우하이텍 족구팀의 선전을 기대한다.

» 관련 기사: 16p



승부보다 소통과 화합의 축제 한마당

제15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모처럼 맑게 갠 날씨에 파란 하늘이 쨍한 빛을 흩뿌리던 지난 5월 25일.

서창공장 전용경기장에서 '제15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가 개최되었다.

오랜 만에 만난 각 사업장의 대표 선수들. 매년 만나는 익숙한 얼굴도, 틈틈이 새로운 얼굴들도 보인다.

반가운 듯 인사를 나누는 표정에는 은근한 기대와 승부욕이 엿보인다.





‘백!’

서창공장 옥상에 마련된 풋살 경기장. 본선 개막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퍼져나가며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가 15번째 막을 올렸다. 지사와 정관, 아산, 핫스탬핑 등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며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칠 것을 약속하였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족구(8개 팀), 탁구(남녀단식, 혼합복식, 남자복식), 풋살(4개 팀) 선수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한쪽에 마련된 우승 트로피들. 올해는 어떤 선수들과 팀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감을 더하였다.



빠른 공격 패턴이 한시도 눈을 땔 수 없게 하는 풋살 경기장에는 올해도 많은 이들의 시선이 향했다. 실력 출중하고 승부욕 강한 선수들은 시종 일관 물러서는 법 없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펼쳤다. 탁구 경기에서는 첫 출전한 핫스탬핑 권성희 대리가 여자 단식에서 깜짝 준우승을 차지하여 내년 경기를 기대하게 했다. 지

난해에 이어 초청된 양산시청 탁구팀 선수들의 시범 경기도 펼쳐졌다. 특히 올해는 남녀 성대결이 진행되어 탁구장으로 구름 관중이 모여들었다. 강력한 드라이브와 스매싱으로 공격하는 김재은 선수와 강한 커트로 응수하는 이태호 선수의 경기는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하였다. 물론 응원에 있어서만큼은 김재은 선수의 압도적인 승! 김재은 선수의 공격이 성공할 때마다 ‘와’하는 환호성이 터졌다. 약한 쪽을 응원하게 되는 것은 스포츠 경기의 불문율이 아닐까. 가장 많은 사업장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족구 경기는 때문에 매년 성우인들이 눈여겨보는 경기 중 하나이다. 올해는 전통 강호 아산 생산관리팀이 5연패라는 대업을 달성하며 또 한 번 실력을 증명하였다.

스포츠 경기를 통해 동료들과 하나 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승부에 연연하기보다 화합하고 단결하며 성우인의 돈독한 동료애를 확인한 축제 한마당이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성우하이텍 회장배 축구, 탁구, 풋살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경기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경기의 재미를 더해주는 축구, 탁구, 풋살의 종목별 **발기술**을 알아보았다.

*자료출처 _ 효영핑통<https://www.youtube.com/channel/UJCbY2IZvpW8pxHcCFDWfwC1w>
전국풋살연합회<http://www.futsal.or.kr>



“탁구는 손이 아닌 발로 친다”

탁구 좀 친다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다. 탁구를 발로 친다니?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은 탁구 스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탁구의 기본이 되는 스텝을 소개한다.

움직이는 범위가 좁을 때(포핸드스트로크 후 쇼트) : 기본자세에서 두 발을 거의 동시에 뛰어주면서 자리를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밟는다. 오른쪽에서 한 번 자리를 잡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아준다.

움직이는 범위가 넓을 때(포핸드스트로크 후 포핸드스트로크) : 오른쪽, 왼쪽으로 다리를 교차해주면서 밟는다. 이렇게 움직여야 최대한 넓게 움직일 수 있다.

잔발 스텝 : 두 발을 동시에 살짝 떼어주면서 좌우 전후로 움직인다. 스윙 전에 한 번, 스윙하면서 또 한 번 밟는데, 연속 랠리 중에는 특히 잔발 스텝을 쉬지 않고 공이 뛰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몸 쪽으로 왔을 때나 사이드로 왔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다.

스텝을 디딜 때는 몸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자연스럽게 무릎이 반동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온다. 또한 반드시 타구 후에 움직이도록 한다. 마음만 급하여 공을 치기도 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치면서 움직이면 타구할 때 자세가 흔들리게 되면서 범실이 많아진다.



빠른 발이 선보이는 화려한 발재간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 팀에게 유일한 승리를 안겨준 독일전을 기억하는지. 세트피스 상황에서 천금 같은 골을 터트린 김영권 선수는 사실 풋살 국가대표팀 출신이다. 골키퍼를 피해 공을 살짝 들어 올린 슛에도 풋살 기술이 녹아 있었다.

발바닥으로 공을 멈춘다 : 빠른 스피드가 관건인 풋살 경기에서는 패스를 받는 즉시 상대방 선수가 따라 붙는다. 때문에 패스를 받을 때 발바닥으로 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발의 안쪽 등으로 받으면 공이 튀어서 상대방에게 쉽게 빼앗기게 된다.

발바닥으로 공을 옮긴다 : 드리블로 전진, 또는 옆으로 움직일 때에도 발바닥을 이용하여 리듬감 있게 옮기면 쉽게 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발바닥의 한가운데가 아닌 발바닥의 사이드를 사용한다.

패스는 되도록 굴러서 한다 : 상대의 머리를 넘기는 패스 외에는 공을 바닥으로 굴려서 패스한다. 공이 튀거나 공중으로 뜨는 패스의 경우 자기편이 공을 멈추기가 어려워 볼을 잡고 다음 동작으로 연결시키기도 어렵다. 굴러서 패스할 때는 공 한가운데를 친다.

토킥으로 슛 : 토킥은 발을 휘두르는 거리가 짧고 단시간에 찰 수 있어 풋살에서 많이 이용된다. 크게 동작을 하여 슛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비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스텝을 밟지 않고 논스톱으로, 엄지발가락을 세워서 차는 것이 요령이다. 발끝을 쪽 편 상태에서 차면 발톱이 아프고 공의 중심을 맞추기 어렵지만 발가락을 세워서 차면 몸이 안정되고 공의 중심을 킁하기 쉬워진다.



나비처럼 날아서 거침없이 하이킥!

날카로운 시선이 한껏 높이 던져진 공을 향한다. 정확한 타이밍에 온몸을 날려 공을 상대 진영에 내리꽂는 거침없는 공격은 마치 무술 동작 같다.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화려한 킥이야말로 족구의 묘미 중 하나다.

안축차기 : 족구의 기본 공격기술이다. 타점이 네트에 떨어져 있을 때는 물론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기술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에는 다른 공격 기술의 바탕으로 활용하게 되는 중요한 자세도 포함되어 있다. 팀의 공격수라면 이 기술만큼은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타점을 대략 자기 왼쪽 어깨 정도에 둔 채 오른발로 휘두르며 무릎을 쭉 뻗어 발 안축으로 강하게 공을 가격한다. 포인트는 다리를 펴는 힘으로 공을 타격해야 한다는 것. 키가 작은 사람이라면 점프를 동반하는 것이 좋지만 자칫 힘이 분산될 수 있어 몸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일시에 쏠리도록 동작을 확실하게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키가 크다면 스윙하는 방향으로 몸을 무너뜨리며 넘어지듯이 차는 것이 정석이다.

발등차기 : 족구가 발전을 거듭 하면서 안축차기보다 약간 뒤에 개발된 기술이다. 안축차기의 기본 동작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발등으로 비스듬하게 공을 후려서 가격하는 것인데, 안축차기보다 각을 더 깊게 낼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다. 스윙 방향 그대로 발등을 내밀어 후려갈기면 된다. 키가 작은 사람도 약간의 점프 동작만 살짝 곁들여주면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

뛰어차기 : 발등차기가 좀 더 개량된 형태의 고급 기술이다. 왼발로 점프를 해서 오른발로 마치 장애물을 타고 넘듯이 차고 그 발 그대로 착지한다. 몸의 무게 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또한 위에서 밑으로 일시에 전이되면서 공을 내려다 쏘는 형식의 기술이다. 때문에 힘과 비거리 면에서 상대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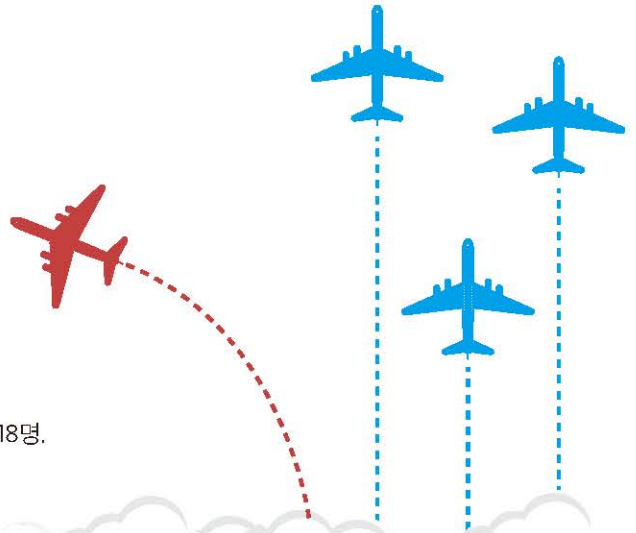
“

거침없는 공격은 마치 무술 동작 같다.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화려한
킥이야말로 족구의 묘미 중 하나다.

”

베테랑들이 그려가는 ‘혁신’의 성우하이텍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3월 5일 출범한 성우혁신사관학교
(SHiOTS, Sungwoo-Hitech Innovation Officer Training School) 1기생 18명.
그들의 좌충우돌 학교생활! 한번 들여다보자.



01_ 3월 5일 입교식

동료들의 격려와 환호를 받으며 대강당 연단에 섰던 조/반장들. 뚝뚝한 사나이들의 얼굴에도 살짝 홍조가 띠었다. 성우하이텍에 몸담은 지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된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직무, 안전, 교양, 화합 교육을 받아왔지만, 맡은 업무까지 All-Stop 하면서 장기간(6개월)을 오로지 교육에만 매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사가 적지 않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성우혁신사관학교를 출범시킨 이유는 현장관리자들의 역량 강화가 성우하이텍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02_ 첫 시간

첫 수업시간,조를 편성하는 것부터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모두들 경력이 오래 쌓이다 보니, 각자 얼굴, 성격, 주량, 집안 사정까지 알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업무와 무관할 때는 그저 좋은 동료일 뿐이었다. 이제 6개월을 함께 같은 조에 편성되어 교육도 받고, 프로젝트도 수행하려고 보니,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오고 간다. 언성이 살짝 높아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생각이 수렴되기 시작하고, 조 편성이 마무리된다. 이제 조 이름과 슬로건을 정하는데... 이것 역시 만만하지는 않다.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03_ 교육 과정

앞으로 6개월간 하는 일을 들으니, 숨이 턱 막힌다. 일일 학습일지를 쓰고, 독후감도 쓰고, 프로젝트도 3개월씩 두번 해야 한다. 10여 명의 사내 강사, 외부 강사를 통해 다양한 직무교육, 리더십 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주눅이 들었다. 동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런데 이런 기억들도 문득 떠올랐다. 업무를 하면서 궁금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했던 기억, 경력이 아닌 실력과 능력으로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었던 기억, 반원/조원들로부터 진심 어린 지지와 존경을 받고 싶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

04_ 일본 연수

버거웠던 일일 학습일지도 한결 익숙해지고, 독후감도 마무리될 즈음에 일본 연수를 하였다. 4박 5일의 일정으로 도요타 및 주변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한때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1위를 넘보기도 했던 도요타는 현장에서 그 저력이 드러났다. 독후감 대상이 된 책들이 도요타를 분석한 내용이었어서 읽을 때는 놀라움 반, 의구심 반이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체계적인 관리와 정돈된 근무 환경이 한나절 만에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들이 성우하이텍에 접목되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05_ 중간 발표회날!

5월의 마지막 날, 1차 프로젝트의 결과를 직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3개의 조에서 3가지 주제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3개월 전, 격려와 환호를 보냈던 직원들이 이번에는 진지한 눈빛으로 발표를 경청했다. 발표 사이사이에 날카로운 질문과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명근 회장이 1기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하였고, 직원들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큰 박수로 동의를 표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현장과 사무실을 누볐던 지난 3개월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06_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성우혁신사관학교. 아직 1기생의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1기생의 교육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강하고 유연한 제조현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성우하이텍을 만들기 위하여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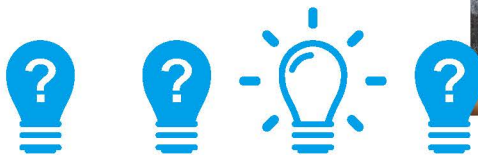
반짝이는 아이디어, 변화의 발판이 되다

“제1회 가라쿠리 경진대회”

5월 24일 서창공장 대강당. 이명근 회장 이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 위에서 발표가 한창이다.
한 달여간의 공모를 거쳐 발탁된 가라쿠리 아이디어 23건을 선보이는 자리, 적용 사례를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임직원 앞에서 직접 시연하기도 하는 등 열띤 발표 현장을 찾아가보았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가라쿠리의 꽃은 단연 반짝이는 아이디어다. 낭비되는
작업자의 동작을 최소화하거나 불편함을 상쇄시키거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거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다양한 아이디어들. 투자 대비 고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현장의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중력, 자기력 등 자연의 힘이나 기구의
운용 원리를 이해하여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협업’이다. 보통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도 단번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 역시 같은 고민에
빠졌다. 생각이 꼬여 풀리지 않는 순간,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길이 보일 것 같은데 그 한 발을 내딛기 어려운
순간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동료들이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는 개선에 개선을
더하여 최적의 것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수정을 더하는 과정에 많은 대화를 하며 동료애가
돈독해진 것은 덤이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또 다른 아이디어의 시작

이명근 회장은 한 건 한 건 발표가 끝날 때마다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중지를 모아준 담당자들에게 감사 표시하는 한편,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강평하였다.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에 특히 힘을 쏟아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명근 회장이 강평을 통해 강조한 핵심은 '중단 없는 개선활동의 중요성'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아이디어 역시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강평을 통해 새로운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곧 '또 다른 아이디어의 시작'인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표된 가라쿠리 우수 사례들의 일부는 이미 국내 각 사업장에서 적용 중이며, 차후 해외 공장으로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장에서 이 같은 혁신적인 개선활동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회사 역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주는 한편, 생산성 역시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이 의미 있는 활동이 'New SUNGWOO'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가라쿠리란? (からくり: 돈 안 드는 자동화)

- 실, 태엽, 수력 등을 이용해 스스로 움직이는 일본의 인형(가라쿠리 인형)에서 착안한 무동력 장치로, 자연의 힘(중력, 자기력, 부력 등)이나 단순 기구의 힘(탄성력, 도르레, 지레 등)을 이용한 업무 개선 활동을 일컫음.
- 저비용 투자로 품질, 생산성, 보전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에 큰 성과 획득

가라쿠리 요건

- 단순·심플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고장, 트러블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할 것
- 돈이 들지 않는 개선일 것(소액의 재료비와 적은 동력으로 제조된 것)
- 현장의 불합리, 불균일, 낭비 등을 퇴치시킨 작업 개선일 것(공정책임자의 편의성)
- 결과적으로 품질, 생산성, 보전성, 물류효율, 안전성 향상 등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일 것

족구 경기의 절대 강자, 더 큰 도전을 꿈꾸다

아산성우하이텍 족구 동호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가 펼쳐질 때면 부러움과 동경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팀이 있다. 족구 경기의 절대 강자, 아산성우하이텍 족구팀이다.

매년 우승은 거의 따 놓은 당상이라고 했더니,

아산시 대회를 휩쓸고 있는
동호회 멤버들이 주축이 된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전
'2018 문경새재 스포츠페스티벌'에 참가한
아산성우하이텍 족구 동호회
멤버들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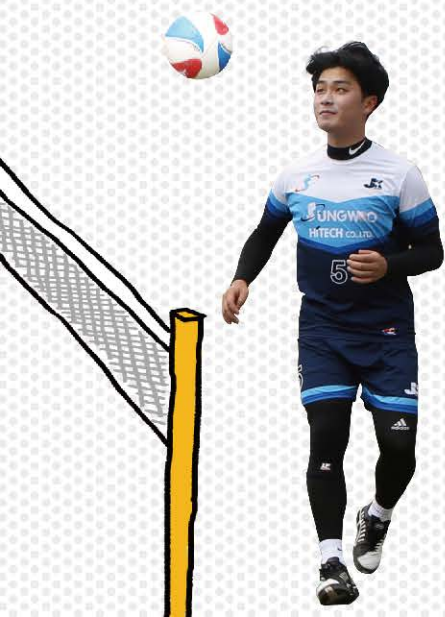


화려한 전적이 증명하는 실력

대회가 열린 7월 8일, 이른 시간부터 각지에서 모여든 직장인·동호인들로 너른 운동장이 북적였다. 며칠간 계속되던 비도 그친 차, 두껍게 하늘을 덮은 구름이 별을 가려주니 경기를 진행하기에 적당한 날씨다.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립4반 맹서영 반장부터 김형삼, 나성진 기사 등 매년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에서 활약하는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띈다. 타지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보는 것이 이런 심정일까. 어쨌든 주먹까지 꽉 쥐고 응원하게 된다. 성우하이텍 족구 동호회는 이날 대회에서 직장부 공동 3위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동호회 팀원은 28명으로, 전국 규모 초청대회에 나갈 만큼의 실력을 갖춘 '일반부'와 아산시 관내에서 취미로 족구를 하는 '관내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난 2014년에 팀을 창단했으니 올해로 5년 차, 창단 원년부터 연 2~3회 열리는 아산시 대회를 휩쓸고 있다. 그 외의 최근 전적도 화려하다. 2014년(對





고려아연)과 2015년(對 삼성전자)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직장인 족구대회’에서 우승 문턱까지 올랐고, ‘보령시장기’, ‘충남 도지사기’, ‘문체부 장관기’ 등 충남 및 중부권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대회인 ‘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에서는 공동 5위 성적을 거두었다. 성우인들에게 잘 알려졌는지피 올해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에서는 족구 경기 5연패를 이뤄내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진다.

“주·야 근무를 하는 특성상 연습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팀원들 간의 믿음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끈끈합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니, 실수를 하더라도 동료가 커버해준다 믿고 마음 편히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그런 팀플레이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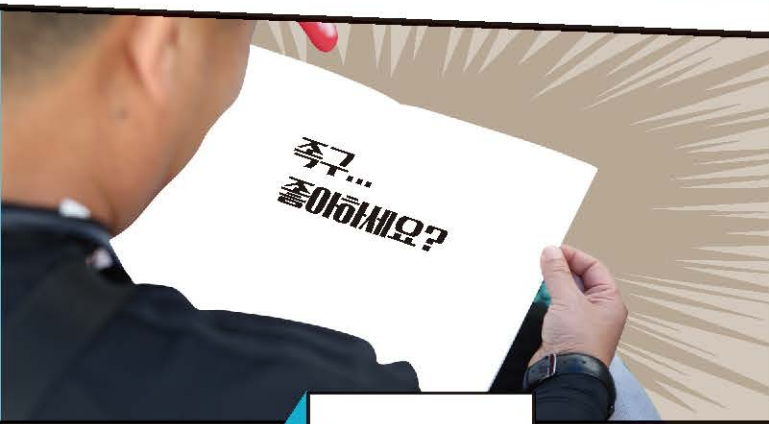
감독인 조립2반 정병채 반장의 말을 듣고 보니 동호회 멤버들 사이에서 마치 한 가족 같은 편안함이 느껴진다. 남다른 끈끈함의 비결은 족구 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 월 모임 때나 대회 때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1년에 한 번 가족과 함께하는 야유회 자리를 마련하여 어울리다 보니 가족 간에도 격 없이 친근하다.



언제든, 누구든 환영합니다

“족구 실력과는 상관없습니다.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즐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환영입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구요.**



최강부 승격,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공식적인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한 번 모일 때 20명 쯤 참석하여 3시간 정도 함께 운동한다.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주 2회(화, 목) 아산시 족구 전용구장에서 여러 클럽들과 함께 연습하고 사내 풋살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산시 대회를 주름잡고 있는 성우하이텍 족구 동호회이지만 아쉽게도 아직 못 이룬 목표가 있다. 전국 각 클럽과 동호회, 직장부 등 모든 팀이 출전하는 메이저 대회 우승이다. 청원썰배 전국족구대회, 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족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초청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최강부로 승격된다. '전국 1부'로 불리기도 하는 최강부는 전국 족구팀 중 기량이 가장 우수한 팀들로 구성되어 현재 37개 팀이 속해 있다. 최강부로 승격되면 내로라하는 쟁쟁한 실력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이다.

메이저 대회 우승이 이뤄야 할 목표의 제일 높은 곳에 랭크되어 있지만, 물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천재도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들이 말하는 족구의 매력은 무엇일까.

“족구는 중앙 네트가 있어서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죠. 서로 실수를 커버해주거나 공격을 받쳐주는 팀플레이의 묘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성우하이텍 족구 동호회의 다음 일정은 아산시 대표로 참가하는 도민체전이다. 동호회 회장인 조립4반 맹서영 반장을 비롯하여 일반부 선수들(조립4반 김형삼 기사, 나성진 기사, 자재지원반 김기룡 기사, 이진원 조장)이 참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성우하이텍 족구 동호회와 함께하고 싶은 직원들에게 전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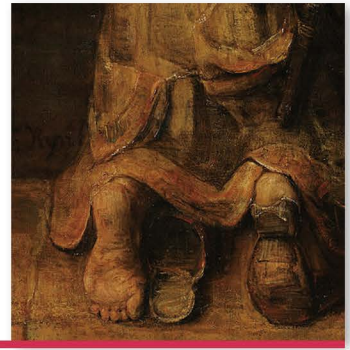
“족구 실력과는 상관없습니다.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즐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환영입니다.”

삶의 궤적을 담다

짧게 자른 머리칼, 너털너털한 옷, 헤진 신발과 굳은살 박인 상처 많은 발을 가진 남자와
그런 그를 안아주는 자애로운 표정의 늙은 남자. 그림 속 남루한 행색의 남자를 두고 네덜란드
미술계의 황금기를 이끈 국민화가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작가 자신의 삶이 투영되었다는 '돌아온 탕자'의 뒷얘기를 만나본다.



돌아온 탕자
Return of the Prodigal Son
1661-1669 렘브란트
캔버스에 유화 / 262×205cm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



이 그림은 <루카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려졌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고 고향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를 받는다는 내용이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다. 넓아빠진 허름한 차림새, 짧게 자른 머리칼 등 남루한 행색이 탕자의 상황을 대변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릎 꿇은 탕자의 발이다. 신발이 벗겨져 드러난 발은 굳은살과 상처로 애처롭기까지 하다. 신발을 신고 있는 쪽이라 해도 상태가 낫지는 않다. 오히려 더 처참하다. 발뒤꿈치가 그대로 드러날 만큼 헤진 신발이 그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드러낸다.

독특한 구도와 다양한 인물의 자세, 개성 넘치는 표정 묘사 등으로 집단 초상화의 혁신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네덜란드의 대표 화가 렘브란트는 <야간순찰>, <니콜라스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등 대표작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화가다. <돌아온 탕자>는 렘브란트가 죽기 전 10년간 그린 미완성작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남루해진 탕자에는 그림을 그릴 당시의 화가 자신이 투영되어 있다. 20대의 이른 나이에 화가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부유층 여인과 결혼하여 미술품 판매로 성공가도를 달린 그가 어떤 연유로 자신을 행색 초라한 탕자에 빗댄 것일까.

젊은 시절의 화려한 성공에 반해 렘브란트의 말년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다. 세 명의 자식들을 잇달아 앞세우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버린 후 그는 미술품 판매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예술세계에 골몰하기 시작한다. 의뢰인에게 외면 받는 화가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종래에는 둘째 아들마저 죽음에 이르러, 렘브란트는 홀로 고독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그림에는 그러한 삶에 대한 깊은 회환이 녹아있다. 탕자의 거칠고 상처 많은 발은 그리고 신발은, 말하자면 이런 화가의 처지가 투영된 오브제이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잃은, 홀로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탕자의 더럽고 굳은살 박인 발로서 그려낸 것이다.

비참할 것만 같은 현실에도 화가는 희망마저 버리지 않았다. 절대자(신, 하느님)를 상징하는 늙은 아버지의 존재다. 그는 보잘 것 없는 물골로 돌아온 아들을 자애롭게 감싸 안는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얼굴에서는 품위마저 느껴진다. 무상한 생의 궤적을 담아 그림을 그린 동시에 죽음 후 신에게 자신을 의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배경이 되는 인물을 어둡게 처리하고, 신적 존재를 비유하는 아버지의 얼굴과 손을 빛 아래 둔 대비에서 '빛의 마술사'라 불리던 렘브란트의 탁월한 솜씨가 엿보인다. 🌈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더 빨리 훔쳐라!

발야구의 백미, '도루'

2004년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4차전. 뉴욕 양키스(NY Yankees)는 보스턴 레드삭스(Boston Redsox)를 상대로 앞선 세 차례의 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시리즈 전적 3대0으로 앞서고 있었다. 4차전 역시 양키스가 4대3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전년도에도 7차전에서 애런 분(Aaron Boone, 현 양키스 감독)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탈락한 악몽이 보스턴에게 되살아나는 듯 했다. 보스턴의 9회 말 마지막 공격. 양키스의 투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무리 투수인 마리아노 리베라(Mariano Rivera,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세이브 투수). 상황은 끝난 듯했다.

첫 타자는 케빈 밀라(Kevin Millar).

공이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데 밀라의 방망이가 나오지 않는다. 5구째 만에 볼넷을 골라 1루로 나갔다. 곧바로 대주자로 투입된 선수는 데이브 로버츠(Dave Roberts, 현 LA Dodgers 감독). 그가 도루를 시도할 것은 양키스도, 보스턴도, 전 세계 팬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포수 호르헤 포사다(Jorge Posada)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리베라와 얘기를 나눴다. 리베라는 언거푸 1루로 견제구를 던지며 로버츠의 스타트를 0.1초라도 뺏고자 했다.

드디어 포수에게 던져진 초구.

완벽했다. 타자의 바깥쪽 높은 곳으로 강한 패스트볼(fast-ball, 소위 '직구'라고 불리지만, 직선으로 가는 공은 없다)이 포수의 미트(mitt, 포수의 글러브)에 꽂혔다. 2루로 송구하기에는 이것보다 좋은 공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로버츠는 초구부터 2루로 도루했고, 완벽한 공을 받은 포사다는 잽싸게 2루로 공을 던졌다. 유격수

데릭 지터(Derek Jeter)의 글러브에 공이 들어가서 로버츠를 태그했다. 완벽한 수비였다. 그런데... 로버츠의 손이 2루에 먼저 닿았다.

"The Steal"의 탄생순간이다.

이후, 빌 뮐러(Bill Mueller)의 적시타가 이어져 동점이 되었고, 보스턴은 12회 연장 끝에 4차전을 승리했다. 이후 5, 6, 7차전을 보스턴이 승리하며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7경기 리버스 스위프(Reverse Sweep: 1~3차전을 지고, 4~7차전을 이기는 것)을 완성했고, 보스턴은 월드시리즈에서 8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밤비노의 저주'를 깼다. 역사적인 도루, "The Steal"이 야구팬들의 뇌리에 박힌 이유이다.

데이브 로버츠는 평범한 외야수였다.

10년간 선수생활을 하며 정규 타석을 채운 것은 단 두 번, 타율은 평균 2할대 중반, 홈런은 10년간 23개에 그쳤다. 대부분 경기 중후반에 대주자나 대수비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2004년 7월에 트레이드를 통해 보스턴에 입단할 때에도 전력을 크게 강화시켜 줄 선수로 아무도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메이저리그에는 야구에도 통계를 도입하기 시작한 세이버메트릭스(Sabermetrics)가 유행하던 시기여서 도루가 크게 환영 받지 못했다.² 그러나 단 한 번의 도루, "The Steal"을 시그니처로 만든 데이브 로버츠는 향후 몇 년간 선수생활을 더 이어갈 수 있었고, LA Dodgers 감독에 오를 때에도 많은 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도루의 4S

흔히 도루의 4가지 S로 스타트(Start), 스피드(Speed), 슬라이딩(Sliding), 센스(Sense)를 꼽는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초창기에 31년간 100m 국내기록(10초 34)을 갖고 있던 서말구 선수를 모 팀에서 선수로 영입했는데, 단 한 번도 경기에 나간 적은 없다. 이를 근거로 혹자들은 센스(sense)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서나 센스 있는 사람은 환영 받는다.



개인 통산 최다 도루 순위

· KBO

순위	도루 수	선수	소속
1	550	전준호	롯데-현대-히어로즈
2	510	이종범	해태, KIA
3	474	정수근	두산-롯데
4	424	이대형	LG-KIA-KT
5	371	이순철	해태-삼성

도루 허용은 누구 잘못인가?

도루를 잡아내는 포수의 멋진 송구도 야구를 보는 재미 중 하나이다. 특히 조인성(前 선수) 포수가 공을 잡자마자 일어서지도 않고 2루로 공을 던져 주자를 잡아내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별명도 “앉아빠”). 그래서 흔히 포수의 강한 어깨가 도루를 막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요즘은 투수의 견제 능력, 투구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투수가 공 던지는 동작(쿼모션)이 1.3초대이면 주자가 살 확률이 높고, 1.5초를 넘어가면 답이 없다).

· MLB

순위	도루 수	선수	소속
1	1,406	리키 헨더슨	오كل랜드 애슬레틱스
2	938	루 브록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3	892	타이 콕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4	807	팀 레이스	몬트리올 엑스포스
5	752	빈스 콜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 1 1918년 베이브 루스가 보스턴에서 양키스로 이적하면서 보스턴이 다시는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 ‘밤비노’는 이탈리아어로 ‘베이비’라는 뜻임. 메이저리그에는 유난히 저주를 만들기 좋아하는데, 밤비노의 저주 외에도 영소의 저주, 블랙삭스의 저주, 토마호크의 저주 등이 있다.
- 2 통계에 따르면 도루를 시도해서 성공하여 득점이 날 확률보다 도루에 실패하여 팀에 손실을 끼칠 확률이 더 크므로 세이버메트릭스 신봉자들은 도루를 꺼려했다. 머니볼로 유명한 오كل랜드의 단장 빌리 빈(Billy Beane)은 도루 한다는 이유로 1번 타자 자니 데이먼(Johnny Damon)을 트레이드시킬 정도였다.

꿈이 아닌 현실로

부산발 유럽행 열차

억압에 저항한 자유로의 길

1927년 6월 19일 부산역,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은 남편과 함께 열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 이 열차에 오르며 나혜석은 세계여행을 한 조선 최초의 여성으로도 기록된다. 경성과 중국 안동현, 봉천, 장춘, 하얼빈을 지난 기차는 만주에 멈추었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갈아탄 그녀는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을 거쳐 파리로 향한다.

시베리아의 아테네라고 하는 톰스크와 정치경제 중심지인 노보시비르스크를 지나 옴스크에 도착하였다. 이 부근에는 쓰러진 오두막집과 부서진 차량이 많이 있어 혁명 당시 참극의 자취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부터 흙빛이 점점 흑색으로 변하여가고, 식물 파는 여자들의 복장이 차차 깨끗해진다.

- 나혜석 『조선여성 첫 세계일주기』 중

기차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은 그야말로 별세계였다. 지역에 따라 다른 역무원 복장, 식물들, 생소한 건축물, 그리고 사람들. 스케치하듯 묘사한 풍경 속에는 혁명의 여파가 남은 러시아와 아시아로 파고들어오는 제국주의의 세계사적 움직임까지 녹아들어 있다.

시대를 앞서간 여인, 나혜석의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유라시아 횡단열차 승차권 Trans-Eurasia Railroad Ticket

부산
Busan

▶
모스크바
Moscow

프랑스
France

1927년



부산을 출발하여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에 도착하는 열차 여행.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꿈같았던 그 일은, 사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 우리가 누려왔던 현실이었다. 조선과 중국, 러시아, 유럽이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던 90여년 전, 기차를 타고 유럽 땅을 밟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본다.

나라 잃은 국가 대표의 꿈을 향한 길

1936년 우리에게 익숙한 또 한 명의 젊은 남자가 베를린행 열차표를 지니고 기차에 올랐다. 24살 마라토너 손기정이다. 마라톤 선수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올림픽 무대를 향하는 길. 그러나 그가 온전히 여행을 즐겼으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나라 잃은 국가대표에게는 꿈을 향한 길인 동시에, 조국의 처지를 단편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아픈 길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손기정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는 묘목으로 가린 채였다.

“남북통일이 되어 고향 신의주와 부산 간 역전 경주에 한 번 뛰어보고 싶다.”

- 손기정

살아생전 이루지 못했던 손기정 선수의 바람이 남북 평화모드의 훈풍 속에 현실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4월 27일, 정전 65년 만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남과 북 두 정상 모습은 전 세계에 보내는 그 어떤 평화의 메시지보다 큰 울림을 남겼다. 그와 함께 끊어진 철길이 다시 이어질 기회가 열렸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철도협력분과회의를 갖고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하는 등 현실화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오래지 않은 과거, 억압에 저항한 여인과 나라 잃은 국가대표의 꿈을 넓혀준 기차여행. 마음속 지도를 한없이 위로 그려나가는 그 멋진 경험을,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누리게 되지 않을까. 🚄

유라시아 횡단열차 승차권 Trans-Eurasia Railroad Ticket

부산
Busan

▶
하얼빈
Harbin

베를린
Berlin

1936년



그 길 위에 내가 있었네

도보여행가 황안나 작가



800킬로미터 국토종단, 4,200킬로미터 해안일주.

여기에 더해 지리산 종주 10회와 산티아고, 네팔, 인도 등 50개국의 길을 밟은 도보여행가.

자그마한 체구의 황안나 작가를 만나보면 이 심상찮은 이력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올해로 79세. 그러나 대화를 이어갈수록 생각은 바뀐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지고 반짝이는 눈빛에는 생기가 가득하다.

‘나’를 찾아 제2의 인생길을 시작하다

도보여행가로 전국을 누비기 전 황안나 작가는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은 베테랑 교사였다. 그러다 문득 교사생활을 그만두고 싶어졌다. 결혼 후 근 30년간 남편 사업비를 갚으며 치열하게 살아오는 동안 정작 ‘황안나’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어느 날이었다. 정년을 고작 8년 앞두고 내린 명예퇴임 결정에도 남편은 평생을 그러했듯 아내의 선택을 지지하였다.

“처녀 시절엔 육남매 맏딸 노릇, 결혼해서는 어미 노릇, 아내 노릇, 사회에선 교사 노릇을 해왔는데 정작 ‘나 자신’이 없더라고요. 육십 가까운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한 일이 있었나 싶었던 거예요.”

퇴직 후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했다. 집 근처 야트막한 산을 시작으로 등산에 발을 들였다.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오른 산의 숫자가 점차 늘어갔다. 백두대간부터 우리나라 산이라는 산에는 죄 그의 발길이 닿았다. 스스로 ‘병주머니’라 부를 만큼 약하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 조희 때면 폭폭 쓰러지기 일쑤더니 어느새 가장 먼저 정상을 밟을 만큼의 체력이 됐다. 그와 함께 자신감도 쌓였지만 예순다섯 되던 해 도전한 800킬로미터 국토종단은 결코 만만찮았다. 그 도전이라는 것도 ‘어느 날 문득’ 마음먹은 것이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난 TV 속 해남 땅끝마을이 너무 예뻐서였다. 땅 끝 해남에서 통일전망대까지, 한비야 작가가 걸은 코스를 따라 4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걸린 시간은 그 반 정도인 23일. 황안나 작가는 ‘이십다’는 말로 첫 국토종단을 기억했다.

“여행이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주위 경치도 보고, 누군가 말을 붙이면 얘기도 하고, 쉬어 가기도 해야 하죠. 그런데 그땐 세상을 향해 완전무장을 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던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무장해제했죠. 낯선 나라에서 온 이방인에게 손수 간 호두알을 쟁겨주시던 동티모르의 할머니 같은, 길 위의 많은 분들을 만난 덕분예요.”

오롯이 자신에게 빠져드는 길 위의 시간 우리나라를 누비이불 누비듯 한 도보여행가답게 왜 걷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사실 곤란하다. 좋으니 걷지 다른 이유가 무에 있으랴 싶다. 우스갯소리로 ‘전생에 감혀 살았을까’ 싶을 만큼 길 위로 나가는 것이 그저 좋다는 황안나 작가. 첫 국토종단 당시 통일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해안일주를 계획했다고 하니 애정을 가늠할 수 있다.

“길 위에 서면 잡생각이 없어져요. 장기도보 때에는 더 그래요. 배낭 하나 메고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온종일 걷다 보면 입에서 단내가 다 나죠. 절로 거대한 자연 앞에 외경심을 느끼게 돼요. 그런 자기 성찰의 기회도 없죠. 한번은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왜인지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길 위에서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돌아가신 어머니,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 말로는 설명 못할 감정이 밀려드는 시간이다. 길 자체가 가진 매력 또한 놓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길을 왜 몇 번씩 가느냐고 하지만, 길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계절과 날씨, 바람의 양과 빛의 느낌에 따라, 길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 그런 감정들을 공유하고 싶어 지난 5월 말에는 막 제대한 손자와 함께 3박 4일간 지리산종주를 떠났다. 베테랑 등산인들 사이에서도 힘들기로 정평이 난 화대종주. 이틀째에는 새벽 4시쯤 노고단을 출발하여 16시간을 넘게 걸었다. 마의 씨리봉에서는 거의 초주검이었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종주를 마치도록 하지 못했어요. 자연 속에 있으니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리산이 하는 말을 아이 스스로, 가슴으로 느끼기를 바랐죠.”



황안나 작가

1940년 개성 출생. 60세 겨울 첫 지리산 종주, 65세에 800km 국토종단을, 67세에 4,200km 우리나라 해안일주를 혼자서 해내 화제가 되었다. 이후 국내의 이름난 길은 물론 산티아고, 네팔, 동티베트, 아이슬란드, 시칠리아 등 50개국의 길을 밟았다. 현재 (사)지리산 숲길 이사로 활동하며 인기 연사로, 국토해양부 해안 누리길 조성 사업 자문위원으로 도보여행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들을 나누고 있다. 저서로 『내 나이가 어때서?』, 『엄마, 나 또 올게』, 『일단은 즐기고 보련다』가 있다.



교수's TIP

걷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난다는 사람들에게

걷기를 일상화해보세요. 출근 때나 퇴근 때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걷는 것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도보여행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두 달 정도는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걸으면서 차차 걷는 거리를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기 쉬워요.

자신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세요

국토종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책인 『내 나이가
어때서?』를 출간했다. 소녀시절부터의 꿈을
50년이 넘게 지나 이룬 순간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감동한 첫 경험이었다.

“책이 출간되던 날 곧장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어떤 남자 분이 제 책을
고르시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다가갈
뻔했지요.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럴 때 느끼는 벅찬 감정이 다른
일에 도전하게 하는 힘을 줄 거예요.”

그 말처럼, 황안나 작가는 이후 수많은
도전을 차근차근 이뤄냈다. 예순일곱에
4,200킬로미터 해안일주를 118일 만에 해냈고,
일흔셋에는 연육교로 연결된 섬까지 포함하여
4,400킬로미터를 135일 만에 걸었다. 여정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스페인 산티아고, 홍콩
트레일, 동티베트, 부탄, 라다크, 중앙아시아 오지
등 해외로까지 이어졌다.

남들은 포기한 나이를 그저 잘 쓰고 있다는
그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예순다섯에
문득 국토종단에 나섰을 때에도, 12년 전 울트라
100킬로 마라톤에 도전했을 때에도 고민은 길지
않았다. 어떤 일이든 '완전한 실패'라는 것은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황안나 작가의
버킷 리스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리스트를 지울
수 있는 못 지우든 중요하지 않다.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도전'이라는 말 자체에 어렵거나 힘들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 실패를 해도 해보는 게 좋아요.
실패가 쌓여서 결국 뭐가 되거든요.” 🌈

걷기 좋은 전국 방방곡곡 도보길 함께 걸을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걷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도보길을
조성 중이라 도보여행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도
희소식이다.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전국 방방곡곡 걷기 좋은 길을 만나보자.



영덕 블루로드 B코스

잡푸른 동해바다와 하늘이 함께 걷는 길

영덕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걷는 블루로드는 그 이름처럼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빼어난 경관이 자랑이다. A, B, C, D 네 개 코스 중 B코스인 '푸른대개의 길'은 블루로드의 정수로 꼽힌다. 해맞이공원을 출발해 석리마을-대게원조마을-블루로드다리-죽도산을 거쳐 죽산항에 이르는 구간이다. 해안 절벽 위 옆으로 이어진 길은 자연 상태의 오솔길과 바위 사이를 데크로 연결한 다리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창포말등대' 등 볼거리도 넘친다.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어진 죽도산은 코스의 마지막 구간으로, 죽도산 전망대에 오르면 죽산항 일대를 360도 조망할 수 있다. 노을이 질 때 내려다보이는 죽산항 전경이 특히 아름답다.

코스(15.5km/5시간)

해맞이공원 → 대탄항(1.5km) → 대게원조마을(9.55km) → 블루로드다리(11.95km) → 죽도산 전망대(12.20km) - 남씨발상지(15.5km)

*자료제공 영덕군청



서산 아라메길 1구간

문화의 정취가 살아 있는 서산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한번에

바다와 산의 고유어 '아라'와 '메'를 합하여 이름을 붙인 아라메길. 서산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길이다. 1구간은 전통가옥과 불교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이름나 있다. 산을 병풍 삼아 고고한 기운을 드러내는 '유기방가옥',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상', 위엄 있는 '해미읍성'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른 키만 한 갈대가 자라는 갈대밭과 탁 트인 구릉지대, 용현계곡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길에서는 상쾌하고 맑은 공기가 피로를 풀어준다. 용현계곡 정상에서는 드넓은 간척지 평야와 천수만을 조망할 수 있다.

코스(18km/약 6시간)

유기방가옥 → 용현계곡입구(6.8km) → 마애여래삼존상(7.4km) → 보원사지(8.9km) → 분기점(공터 14.6km) → 정자(조망대 14.9km) → 해미읍성(18.0km) *자료제공_서산시청 관광산업과



부산 갈맷길 2코스

첨단과 자연을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

부산갈맷길 2코스는 찌를 듯 높이 오른 첨단 건물과 푸른 바다, 짙은 숲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을 지나면, 다시 새로운 바다가 열린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절묘한 해안절경을 보여주는 이기대(二妓臺) 코스다. 해변에 면한 이기대공원은 2킬로미터에 달하는 갯바위를 비롯해 해안과 숲길을 오르내리는 코스, 암석과 암석 사이의 데크 등 빼어난 풍광만큼이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갯바위 사이로 몰려와 부서지는 파도, 멀리 보이는 수평선, 그리고 농바위에서 바라보는 오륙도 쪽 정경은 이기대의 백미다. 1993년 시민들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군사작전지역으로 통제되었던 곳으로, 희귀한 식물과 곤충을 만날 수도 있다.

코스(18.3km/약 6시간)

문탠로드 → 해운대해수욕장(1.4km) → 누리마루 APEC하우스(2.4km) → 민락교(5.7km) → 광안리해수욕장(9.1km) → 동생말(13.1km) → 어울마당(14.3km) → 오륙도 유람선선착장(18.3km)



지리산 노고단길

한여름에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하늘길

지리산 노고단길은 국립공원이 피서객들을 위해 추천하는 '하늘길' 중 하나. 해발 1,300m가 넘는 해발고도에 위치해 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성삼재휴게소를 출발하여 약 30분가량 올라가면 무녕기에 도착한다. 시야가 넓게 탁 트인 이곳에는 조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구례읍과 섬진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지리산 10경 중 하나인 노고단 운해를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무녕기에서 700m 정도 평지를 걸어가다 보면 노고단 대피소로 향하는 지름길(계단)과 흙길을 만난다. 노고단대피소에서 노고단고개(해발 1,430m)까지는 계단과 평지를 이용하여 오를 수 있다. 성삼재주차장과 바로 이어져 산행이 쉬운 편에 속하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전탐방 예약을 통해야 방문 가능하다.

코스(4.7km/약 1시간 20분)

성삼재주차장 → 무녕기(2km) → 노고단대피소(3.3km) → 노고단 고개(4.7km) *사진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세상에 디딘 너의 첫 번째 발자국



보전기술팀 남상운 대리 가족

첫아이를 품에 안아보았을 때 느낀 진한 감동을 기억하는지.
보전기술팀 남상운 대리 역시 명찬이(4)와 만났을 당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벅참을 느꼈다.
한 손에도 넉넉히 남던 자그마한 발로 스스로 바닥을 디디고 한 발 한 발 떼어놓던 순간의 감동은
또 어떤지. 아이가 주는 일상의 행복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 아닐까.



기다리던 '똥망이'와의 첫 만남

남상운 대리·이수미 씨 부부에게 명찬이가 찾아온 것은 결혼 후 1년 반쯤 지나서였다. 연애기간만 13년. 긴 연애 끝에 결혼한 만큼 첫아이에 대한 기대도, 기다림도 남달랐다. 똥망똥망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태명을 '똥망이'라 지었다. 그리고 2015년 1월 18일,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똥망이와 만났다. 아직은 어리바리 초보아빠였던, 남상운 대리가 전하는 그날의 기억 한 토막.

“신생아를 처음 안아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도 발도 얼마나 작은지... 혹시 잘못 안아서 다치지나 않을까 안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엄마아빠에게는 작아만 보였지만 명찬이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상위 1%에 해당할 만큼 건강상태도, 발달상태도 좋았다. 둥글둥글하게 얼굴 살이 오른 아깃적 사진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난다. 네 살이 된 지금까지도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가장 고맙다.



성우하이텍어린이집 4세반, 남명찬

명찬이는 성우와 또 다른 특별한 인연이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성우하이텍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것. 유아교육 전문가로 엄마들에게 인기가 좋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라, 회사 공고가 뜨자마자 거의 1순위로 신청을 했었다. 좋은 시설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며 사회성이 길러진 것 같아 만족감 또한 크다. 명찬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동안 식구가 늘었다. 올해 2월 명찬이와 똑 닮은 둘째 윤찬이가 태어났다. 오랜 만에 아기 울음소리 나는 집안에는 요즈음 두 배의 행복이 가득하다.

“찬이가 질투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동생을 살뜰히 잘 챙기더라고요. 마냥 아이로만 봤는데 저도 형이라고 좀 의젓해졌어요.”

이수미 씨의 말처럼, 인터뷰 중에도 연신 동생의 작은 손을 쓰다듬는 명찬이. 눈에서는 거의 꿀이 떨어진다.



“찬아, 아빤 찬이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앞으로도 잘 지내자~
대신! 장난은 조금만 덜
쳐줘~ 하하.”



“찬이가 동생 윤찬일 잘 돌봐줘서
엄마는 늘 고마워 ^^ 앞으로도
엄마 잘 도와주고~ 이다음에
사춘기가 지나서도 엄마랑
대화도 많이 하고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
사랑해.”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길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고 또 동생이 생기면서 부쩍 의젓해졌다는 명찬이. 물건 정리할 때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똑 소리 나는 명찬이지만 아빠와 장난을 치고 좋아하는 카봇 로봇을 자랑 삼아 늘어놓을 때는 영락없는 네 살 아이다. 남상운 대리·이수미 씨 부부는 명찬이가 지금까지처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전하였다. 🚀

39년 만에 폐기된 “무재해 운동”을 아십니까?

고용노동부는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온 무재해 운동을 올해부터 민간 자율운동에 맡기고 정부가 손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신규인증을 중단하고, 기존 인증해오던 사업장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무재해 운동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여 재해 1건이 발생하는 동안 무재해를 달성하면,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1배), 고용노동부 장관상(2~3배)을 수여하거나 무재해탑(5배)을 세우는 방식으로 포상했다. 28만8,937개의 사업장이 무재해 운동에 참여하여 7만9,167개가 인증을 받았다(2017년 말 기준). 인증 받은 기업의 임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어 홍보 효과도 상당했다.

이렇게 좋은 무재해 운동을 정부는 왜 폐기 선언하였을까?

무재해 운동은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산업화 초기에 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무재해 운동이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발생한 산재에 대한 은폐이다. 여기에 재미난 통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률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독일의 재해율을 비교해보면, 0.48%(우리나라, 2017년)와 2.5~3%(독일)인데,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은 0.52명(우리나라, 2017년)과 0.16명(독일, 2014년)이다(참고로 OECD 15개국 평균 0.3명, 2014년). 우리나라 재해율이 독일의 1/5 수준인데, 사망자는 3배 이상 많다는 점이 무엇을 의미할까?

두 번째 부작용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하거나 과도한 비난이 따른다는 점이다. A기업은 20년째 무재해를 달성하여 무재해탑도 세우고, 지역 신문과 방송에 수차례 보도되었고, 무재해 달성을 매년 경영지표로 삼아왔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부실한 기구로 인해 추락하여 한 달의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추락으로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20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린 장본인', '경영지표 미달성으로 성과를 해친 동료' 등의 말이 직원들 사이에 심심치 않게 오갔다.

무엇보다 큰 부작용은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할 현장근로자들이 객체화, 대상화되어 수동적, 비자발적 참여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무재해 달성을 위하여 기업들은 사고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주로 책임자를 문책하거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부정적인 방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고를 숨기려는 경향은 더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전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면서 안전관리자와 현장 노동자 간에 불신이 깊어진다. 그것이 계속되면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안전 문화 달성의 주인이 아닌 "위에서 지시하니까", "안전관리자가 시키니까"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무재해 운동'의 폐기는 안전 관리가 '결과(outcome)' 중심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process)'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고용노동부도 목표지향형 산재 예방활동인 무재해운동 대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에 집중하는 새로운 지표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역량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체계의 원활한 운영 △안전한 기계·기구의 사용 등을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7월 18일, 고용노동부와 성우하이텍이 함께한 안전캠페인을 통하여 성우인 스스로 안전 문화 형성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96명의 생명을 살린 위대한 선택



광명 87호의 '전제용' 선장

'관여치 말라'는 회사의 지침에 고민하던 것도 잠시,
양심의 소리에 따라 뱃머리를 돌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동력도 없는 배로
망망대해에서
풍랑, 굶주림, 죽음과 사투하던 96명의 베트남인을
'광명87호'가 살려냈다.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진다."

부산항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
아이와 여성들에게 선원들의 숙소를 내어주고,
노인과 환자는 선장실에서 성심껏 치료하며,
25명 선원의 열흘 치 식량으로 96명의 베트남인과 나눠 먹으며,
마침내 부산항에 도착했다.

피터 누엔 씨는 당시 '광명 87호'에 의해 구조된 베트남인이다.
부산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가 되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생명의 은인 '전제용' 선장을 찾기 시작했다.
17년간의 긴 수소문 끝에 2004년 어느 날.
드디어 '전제용' 선장을 미국으로 초대하여 재회하게 된다.
그날, 마중 나온 베트남인들의 뜨거운 눈물이 미국 공황을 적셨다.

1985년 11월 14일, 인도양에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귀향하던 광명 87호와 전제용 선장

1985년 11월 14일. 1년간의 조업을 마치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던 참치 원양 어선 '광명 87호'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 뜻밖의 SOS를 외치는 조그만 난파선을 발견한다.
가랑잎 같은 배 안에는 사흘을 굶주린 96명의 베트남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베트남 보트 피플'이었다.

[2009년 10월 11일, <KBS 스페셜: 어떤 인연 - 전선장과 96인의 난민들>] 참조

'광명 87호' 이후 전제용 선장의 삶

그는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반공을 국시로 하던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난민 구출을 이유로 정부에 불려가 조사도 받았다.
다른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한 곳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수십 명의 선원을 책임지던 큰 배의 선장이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도 강제로 구겨 넣은 채 낙향 후 멍게 양식업에 종사하며 19년을 살아왔다.
만약 전제용 선장이 1985년, 그날의 남중국해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가 피터 누엔 씨에게 남긴 편지의 마지막 내용.

**보트 피플을 구조할 때,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추천으로 UN 난센상에 추천받자
"내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들을 구했었을 것입니다"라고
전 선장은 담담하게 소감을 이야기했지만,
그날 베트남 보트 피플 96명은 25척의 배로부터 외면당했고,
26번째인 '광명87호'에 의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

1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공산화된 베트남을 탈출한 남베트남의 상류계층, 반공주의자, 미국에
협조하던 사람들 등이 밀항하거나 추방당한 것을 말한다. 1970년대 중반기부터 1980년대
중반기에 이르는 10년 동안 약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여 당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어딘가 '수상한' 홈즈가 나타났다: 셜록 SHERLOCK



“아프가니스탄인가, 아니면 이라크?”

2010년 이 짧은 대사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아서 코난 도일의 명저 『셜록 홈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국드라마 <셜록>의 시작점이자, 21세기형 셜록 홈즈(베네딕트 컴버배치 분)와 존 왓슨(마틴 프리먼 분)의 첫 만남 신이다. 짙은 색 굵슬머리, 하얀 얼굴에 떠오르는 냉소적인 표정과 독설은 기본, 사건이 없을 때엔 지겹다는 이유로 벽에다 총질을 해대는 괴짜. 이 낯설고 새로운 '셜록'은 시리즈 성공의 열쇠였다. 스스로 '세계 유일의 자문 탐정'이라 일컫는 대로 빈틈없는 추리 실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수사기법과 한결 발전한 과학수사는 또한 탄탄한 추리를 뒷받침한다. **홀지언(Holmesian)**¹을 자처하는 제작진들은 원작을 오마주한 장면들을 드라마 곳곳에 배치하거나 추리 과정을 화면에 표시하는 기발한 편집을 통해 원작 팬들은 물론 세계적인 열광을 이끌어내었다. 셜록의 인간적인 면모를 끌어내는 존 왓슨, 최대의 적 짐 모리아티, 베이커가 221B번지의 안주인 허드슨 부인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캐릭터들 각각이 매력적이다. 시리즈의 성공으로 두 배우는 피터잭슨 감독의 <호빗>, 마블 스튜디오의 <닥터스트레인지>, <블랙팬서> 등 프랜차이즈 영화들에 잇달아 캐스팅되며 세계적인 스타로 급부상하였다. 배우들의 뻘뻘한 스케줄 탓에 <셜록>은 시즌 4 이후 멈춘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팬들이 이들 콤비의 컴백을 기다린다. 추리와 가슴 뛰는 모험으로 안내할 '게임'이 또다시 시작되기를.

시즌 4(12개 에피소드)

1 소설 『셜록 홈즈』 및 관련 작품들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팬들을 영국에서 일컫는 말.



여름 더위 몰아낼 정주행 미드(영드)시리즈

기록이 깨졌다. 사상 최고라 여겨지던 1994년 폭염 기록을 일찌감치 갈아치운 올여름 더위는 지독하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라다.

이럴 땐 몸이 으스스해지고 털끝이 쭈뼛해지는 공포물이나 추리물이 제격.

한 번 시작하면 밤새우는 것은 기본, 정주행(몰아보기)을 부르는 꿀잼 보장 미국드라마(영국드라마) 시리즈를 소개한다.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CW, IMDb

CRIME SCENE DO NOT CROSS

CRIME SCENE DO NOT CROSS

CRIME SCENE DO NOT

좀비 아포칼립스의 새 장을 열다: 워킹데드 THE WALKING DEAD

“HEY YOU, DUMBASS. HEY YOU IN THE TANK. COZY IN THERE?”

헤이, 멍청아. 거기 탱크 안에 당신 말이야. 거기 있을 만해?



좀비 이야기는 어딘가 유치하고도 뻔할 것이라고 여기던 시기가 있었다. 이런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것이 **좀비 아포칼립스²**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며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뤄낸 <워킹데드> 시리즈다. 로버트 커크만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좀비 출몰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투철한 생존기를 그린다. 주인공인 릭 그라임스(앤드루 링컨 분)를 중심으로 릭과 팀을 이룬 인물들, 그들과 맞서는 적 등 다양한 인간군상이 등장하는데, 시리즈의 특성상 주요 인물들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 없다. 때문에 각 캐릭터의 팬들은 응원하는 캐릭터가 죽음을 맞이할까 봐 가슴을 졸이기도.

살점이 썩어 녹아내리거나 인체 한 부위가 너덜너덜해진 채 생존자에게 달려드는 좀비들의 충격적인 비주얼은 이 시리즈의 백미이다. 극사실적인 묘사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극한의 공포와 긴장을 느끼게 한다.

한편, 한국인들에게는 이 시리즈가 좀 더 특별하다. 시리즈의 주축이 된 인기 캐릭터 글렌(스티븐 연 분)의 존재 때문. 글렌은 드라마 유일의 한국인 캐릭터로, 기존의 미국 드라마에서 그려지던 아시안 캐릭터의 전형을 벗어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즌 1 글렌의 첫 등장 신, 첫 대사를 놓치지 말길. 여전히 시리즈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시즌 8(115개 에피소드)

오는 10월 시즌 9 방영 예정

2 인류가 좀비화되고 이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세계관을 가리킨다. <부산행>, <곡성>, <월드워 Z>가 이에 해당한다.

<슈퍼내추럴>은 14시즌을 앞둔 미국의 장수드라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윈 딘(젠슨 애클스 분)과 샘(제러드 파달레키 분) 윈체스터 형제. FBI나 경찰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악령이나 드라큘라, 늑대인간 등 '슈퍼내추럴'한 존재들을 쫓는 헌터이다. 개별 에피소드는 도시괴담, 전설, 신화에 기반한 사건을 해결하는 형제들의 모험담을 따르며, 형제가 상대해야 하는 거대 악(적)을 중심으로 전체 시즌의 큰 줄거리가 전개된다. 오컬트적 요소가 다분한 장르 특성상 원한에 휩싸인 악령, 모습 변환자, 뇌를 파먹는 괴물 등 모골을 송연하게 하는 각종 괴물들이 등장한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스케일이 커져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대천사, 루시퍼, 죽음, 신 등 다양한 존재도 만날 수 있다. 형제의 지원군인 천사 카스티엘(미샤 콜린스 분)과 바비(짐 비버 분), 미워할 수 없는 악마 크라우리(마크 셰퍼드 분)는 특히 인기 캐릭터이다. 이와 함께 죽은 캐릭터의 재등장, 평행세계, 다른 장르와의 크로스오버(스쿠비두³)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또한 이 드라마만의 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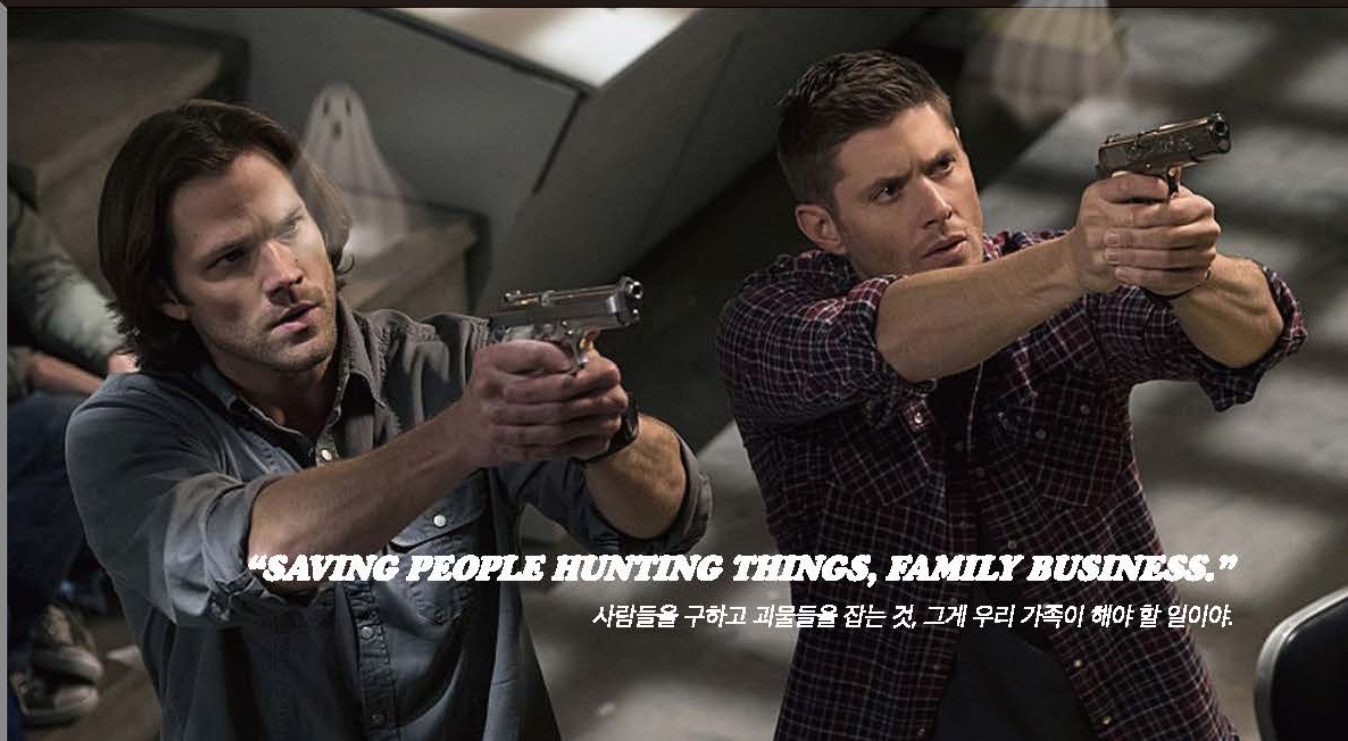
미드계의 <전원일기>로 불리기도 할 만큼 언제 끝날지가 더 궁금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이는 결국 시리즈의 인기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유머러스하고 정의감 넘치는 딘과 진중하고 마음 깊은 샘 형제는 시리즈의 일등공신. 서로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세상의 종말을 막고자 희생도 마다않는 형제의 이야기는 거대한 스케일과 탄탄한 각본, 실제 형제처럼 지내는 배우들의 케미스트리와 더해져 빛을 발한다.

시즌 13(287개 에피소드) / 오는 10월 시즌 14 방영 예정 🚀



3 1969년 첫 방영된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로 13시즌에서 크로스오버하여 화제를 모았다.

악령 쫓는 꽃미남 헌터 형제: 슈퍼내추럴 SUPERNATURAL



"SAVING PEOPLE HUNTING THINGS, FAMILY BUSINESS."

사람들을 구하고 괴물들을 잡는 것, 그게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이야.



하늘 닮은 파란 바람이 불어오면 가을 축제 찾아 떠나요

하늘 닮은 파란 바람이 눈발에 곡식을 쓰다듬고 산은 알록달록 단풍옷을 입힌다.
유별나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청량한 가을을 만끽하러 축제를 찾게 된다.
가을 담은 다양한 축제에서 무르익은 풍성함과 나눔을 즐겨보자.



김제지평선축제

하늘과 땅이 만나 풍성한 축복 있으리

그 끝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넓디나 넓은 들녘은 어느 누구나 기를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다. 그 벌판은 "장계 맹갱 외메릿들"이라고 불리는 김제 만경평야로 곧 호남의 일부이며, 호남평야 안에서도 김제 만경 벌은 특히나 막히는 것 없이 탁 트여서 한반도 땅에서는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곳이다.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중-

황금들녘의 풍요로움, 열정과 감동,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김제지평선축제는 국내 유일의 농경문화축제로, 국내 최초로 5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2018년부터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평선이라는 무형적 요소가 농촌의 향수와 잘 어우러져 한국적인 축제가 되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횃불퍼레이드, 풍년기원줄다리기, 세계인 연날리기 등 다양한 주요행사가 축제를 흥겹게 한다. 특히 연날리기, 줄다리기 등은 외국인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축제를 즐기고 인근에 있는 1400년 고찰 금산사와 세계 최장(33.9km)의 새만금방조제 등 주요 명소를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기간: 2018. 10. 5.(금) ~ 10.9.(화)

장소: 전북 김제 벽골제 일원

문의: 063-540-3031~6

홈페이지: <http://festival.gimje.go.kr>



무주반딧불축제

가을 밤하늘에 펼쳐지는 영롱한 빛의 예술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삶의 피로를 풀고, 아이들은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축제. 20년 전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반딧불축제에서 행복해하던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꼭 잡고 두 배의 행복을 만끽하며 축제를 찾는다. 올해는 문화관광 대표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치르는 첫 축제인 만큼 특별함이 있다. 반딧불과 반디별, 낙화로 이어지는 빛을 테마로 축제가 이어진다. 캄캄한 밤 반딧불이 서식지로 탐사를 떠나는 인기 핵심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개선된 콘텐츠로 축제의 취지와 목적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전통꽃놀이인 '무주낙화놀이', 별자리를 찾아보는 '반디별탐사' 등 다양하고 즐거운 행사가 가득하다. 가족과 함께 반딧불이를 찾아보고 쿠션에 누워 별자리 여행을 떠나면 추억이 가득 쌓인 가을이 될 것이다.

기간 : 2018. 9. 1.(토) ~ 9. 9.(일)

문의 : 063-324-2440

장소 : 등나무운동장, 반디랜드 등 무주군 일원

홈페이지 : <http://firefly.or.kr>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 장성을 지킨 황룡의 전설

지난해 10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으며 대박을 터트린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화려해진다. 누런 용이 마을 사람들을 수호했다는 황룡강의 전설을 스토리텔링화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로 단숨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황룡강변에 10억 송이 가을 꽃을 심어 전국에서 가장 긴 '꽃강'을 조성해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냈던 백일홍, 황화코스모스와 함께 올해는 핑크몰리, 아스타, 송엽국 등 다양한 가을 초화류를 선보인다. 핑크몰리는 여러해살이풀로 컬러풀한 자태와 특유의 몽환적이고 이국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 것이다.

행사장은 '햇빛·꽃빛·달빛·별빛정원' 4곳만 조성하여 황룡강이 지닌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최대한 살린다. 해바라기 정원인 '햇빛정원'의 테마는 해를 따라 움직이는 노란 해바라기. 메인 정원이 될 '꽃빛정원'의 테마는 장성의 이야기, 빛, 자연을 더해 꽃으로 수놓은 정원이다. 이곳에는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 시켜줄 공연·전시·체험·푸드·주막존이 함께 들어선다. '달빛·별빛정원'은 가을밤 가족,

친지, 연인과 함께 황룡강 위에 두둥실 뜬 달빛을 향해 소원을 빌며, 강을 따라 흐르는 은하수 별빛을 찾아 사색하는 정원이다.

축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행사장과 장성역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기간 : 2018. 10. 21.(일) ~ 10. 28.(일)

장소 : 장성 황룡강 일대

문의 : 061-390-7225

홈페이지 : 장성군청 <http://jangseong.go.kr/>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조선시대의 민초가 되어보고
동래부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동래읍성역사축제 역사 속 그날의 치열함이 축제로 승화되다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조선시대의 민초가
되어보고 동래부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동래부사 송상현의 충절과 옛 동래읍성민의 삶이
녹아있는 동래읍성에 역사축제가 있다. 제24회를
맞은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동래성 사람들 그 역사
속으로'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된다.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왜군에 맞서 나라를 위해 초개같이
목숨을 던진 동래부사 송상현과 동래 읍성민의
치열한 전투를 그린 동래성전투 실경 뮤지컬,
전국 유일의 동래세가다크줄다리기 재현, 짹짹
엽전을 가지고 동래 읍성민이 되어보는 동래장터
체험, 향긋한 쪽파 향을 느낄 수 있는 동래파전 등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하다.

2014~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2014~2018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다.

기간: 2018. 10. 12.(금) ~ 10. 14.(일)

장소: 부산 동래문화회관, 읍성광장, 온천장 일원

문의: 051-550-4000

홈페이지: [http://dongnae.go.kr/festival/
index.dongnae](http://dongnae.go.kr/festival/index.dongnae)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젊음이 흐르는 생태 하천

‘젊음이 흐르는 정관 생태하천에서의 교육, 문화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지역 랜드마크인 좌광천 일원에서 진행된다.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가족 걷기대회’를 비롯해 ‘기장 도자기 체험학습’, ‘허수아비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사생대회, 백일장, 시 낭송 같은 문예행사 등 참가자들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행사들이 준비하다. 안데르센 극장 공연, 청소년 가요제, 정관 관내 초등학교 어울림 한마당, 가요특집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행사도 마련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창의과학 체험학습, 기장 가족영어 체험학습, 정관 나눔 플리마켓,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기장군 복지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축제 기간 정관 어린이도서관 앞 광장(윗골공원)에서 마련되는 ‘창의과학 체험학습’, ‘기장 가족영어 체험학습’ 등에 온 가족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축제를 백배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정관 좌광천변 일원에서 열려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기 좋다.

기간: 2018. 10. 27.(토) ~ 10. 28.(일)

장소: 정관읍 좌광천변 일원

문의: 051-709-4332(기장군청)

홈페이지: <http://gijang.go.kr/index.gijang>



러시아의 비즈니스 매너



매너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Manners Makes Man(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이라고 하지 않던가.

세계 최강의 자동차 차체 회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성우인이라면 각 국가별 비즈니스 매너쯤은 익혀두자.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처럼, 각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비즈니스 매너가 성우인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이번 호에 만나볼 나라는 얼마 전 월드컵을 치렀던 러시아다.

* 참고 자료: KOTRA 국가정보 자료

러시아의 비즈니스 매너 키워드 #관계 형성이 먼저

언제까지
여객차를 추게 할 거야?

한 박자 쉬고



대륙기질에서 영향을 받은 러시아식 만만디(행동이 굽뜨거나 일의 진척이 느림) 기질,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의 영향 등으로 러시아인들은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천천히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신뢰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프로젝트 업무를 할 때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잘 안될 확률이 높다. 러시아 비즈니스 파트너와 업무를 추진 중이라면, '한 박자 천천히'를 기억하자. 성급한 속도로 추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러시아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시장'이다.

- ❑ 신뢰 형성이 먼저 꾸준한 업무 연락과 유연성을 통해 관계(우정)를 형성한다.
- ❑ 평등 중시 평등을 중요시하므로 상호간에 공평하게 이익을 보는 것임을 강조한다.
- ❑ 명함은 아직 어색해 러시아는 아직 명함을 주고받는 문화가 어색하다. 명함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미팅이 잘 안 되었다고 속단하지 말 것.
- ❑ 미팅 약속 시 5월 첫째 주는 연휴이므로 피한다.

러시아의 비즈니스 매너 #자긍심을 세워줄 것

지난 6월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현지에서 화제를 모았다. 레프 구밀료프, 톨스토이, 가가린 등 러시아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들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어 현지인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러시아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보통 몇 개의 전공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 등 지식수준이 높다. 러시아인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러시아의 문화, 예술 등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높은 문화 수준, 세계 강대국들과 대등한 외교적 지위 등 자긍심을 존중하는 말을 건네 보자.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고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 ✔ **예술가**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푸시킨, 안톤 체호프
- ✔ **그 외** 레닌(정치가), 가가린(우주 비행사), 레프 야신(골키퍼), 레프 구밀료프(역사가)

한국인들의 서재에는
톨스토이의 소설과
푸시킨의 시집이 꽂혀있답니다.



러시아의 비즈니스 매너 키워드 #선물

러시아인 비즈니스 상대가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가 기회다. 파트너는 물론, 그들의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도 비즈니스 성공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선물을 준비하여 관계가 더 좋아지는 기회로 삼고 간단하게나마 식사 예절도 알아두자.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핑긋~★

- ✔ **보드카는 No!**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드카 선물
=한국인에게 소주 선물
- ✔ **여성의 날(3.8.) 챙기기** 여성 동료나 비즈니스 상대에게
꽃이나 화장품 등 선물
- ✔ **꽃 선물 시 주의할 점** 노란색 꽃이나 짙은 꽃 선물은 금물(죽음을 의미)
- ✔ **인사 매너** 문간에 정령이 산다고 믿는다.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것은 금물.
- ✔ **식사 매너** 빈 병은 반드시 탁자 아래에 둘 것
(탁자 위에 두면 불운을 가져온다고 생각)
- ✔ **음주 매너** 술자리에서는 첫잔을 꼭 비울 것 🍷



더울수록 찾게 되는 한국의 전통빙과 달콤 얼얼한 팔빙수

“빙수야 팔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팔빙수야 녹지 마 녹지 마~”

- 윤종신의 '팔빙수' 가사 중

여름마다 듣고 흥얼거리는 노래가 더울수록 반갑다. 애절한 노랫말이 팔빙수 한 그릇을 갈망하는 여름날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 팔빙수는 가장 한국적인 여름의 대표 먹거리다. 1900년대 초중반 단팥죽을 끓여 시원하게 먹기 위해 빙과를 만든 것이 기원이다.

조선시대 관료들도 얼음을 갈아 다양한 과일을 얹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여름의 더위를 잊게 해줄 먹거리로 빙수가 최고였던 것이다. 달콤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은 아무도 못 말리는 한 여름의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준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소문난 맛집 팔빙수를 찾아 더위를 날려보자.



맛의 정성

용호동 '할매팔빙수'

1976년 가게를 시작한 용마상회는 얼음과 탁주를 팔고 겨울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떡볶이와 붕어빵을 팔았다. 붕어빵을 맛본 손님들에게 팔소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팔빙수와 단팥죽을 팔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용호동할매팔빙수'로 이어졌다. 70년대에 입소문 그대로 '팔' 맛이 단연 일품이다. 과하지 않은 단맛에 손맛이 어우러진 깊은 맛 덕분에 별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팔빙수에도 절로 감탄하게 된다. 지금의 할매팔빙수를 있게 한 붕어빵도 여전히 팔고 있으니 사이드메뉴로 함께 먹을 것을 추천한다. 단, 한창 바쁜 시간은 일손이 부족해 붕어빵을 잠시 쉬기도 하니 알아보고 방문하도록 하자. 여러 미디어에 소개되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맛과 착한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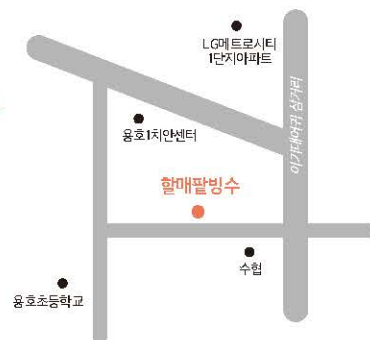
영업시간

하절기 09:00 ~ 23:00

동절기 09:00 ~ 22:00

부산 남구 용호로 90번길 24

T. 051-623-9946



달은 듯 다른 두 맛집

착한 가격과 직접 만든 팔
별다른 재료 없이 팔으로 승부!

카페처럼 여유롭게 즐기는 공간
- 보성녹차

어마어마하게 빠른 자리 회전율
- 할매팥빙수



시원하고 몸에도 좋은

남천동 팥빙수 '보성녹차'

팥빙수에 녹차가루가 뿌려져 카테킨이 풍부한 피로회복 팥빙수가 완성되었다. 정성들여 직접 끓인 단팥에 녹차가루가 넉넉하게 올라간 것이다. 적당한 단맛에 평소 녹차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강추다. 함께 파는 단팥죽도 맛이 기가 막힌다. 알고 보니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팥빙수 대표로 1등을 했단다. 워낙 핫플레이스라 유명인들의 흔적도 남아 있다. 서넛이 함께 간다면 메뉴 하나는 단팥죽으로 꼭 시켜서 나눠 먹자. 이곳 가게는 특히 이국적인 피서지 분위기가 물씬 난다. 분위기가 다른 테이블이 많으니 건너편과 2층까지 가게를 찬찬히 둘러보고 골라 앉는 재미는 톱이다. 이 가격에 먹어도 되나 싶은 착한 가격(2,500원)에 너무 놀라지 마시길! 🚀

영업시간

매일 10:00 ~ 22:00

부산 수영구 수영로 394번길 28

T. 051-625-5544



일과 삶의 균형, 변화하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

“워라벨”, “소확행”, “올로”, “가심비”

한 단어라도 정확하게 뜻을 안다면? 당신은 센스만점 직장 상사!!!



#소확행(小確幸) : 작지만 확실한 행복. 1990년대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필집에서 처음 소개한 신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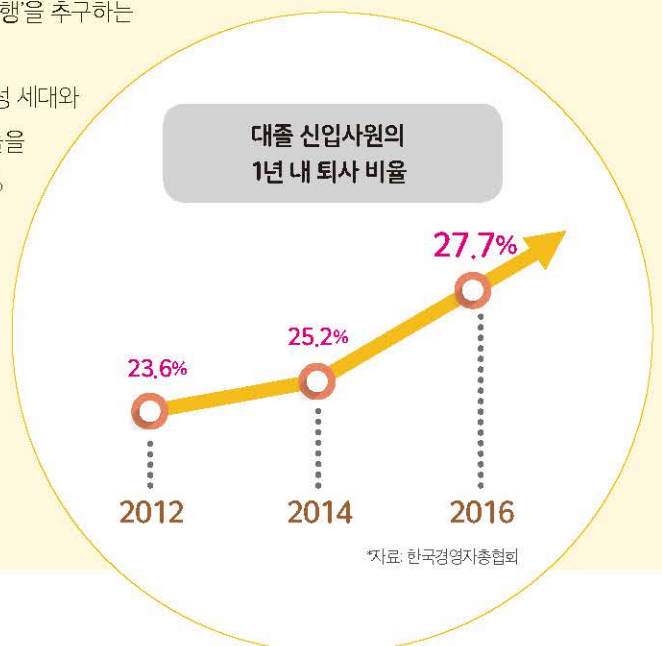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 1970년대 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

#올로(You Only Live Once) : “인생은 한 번 뿐이다”라는 모토 아래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가심비(價心比) :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가성비’에 대비되는 말로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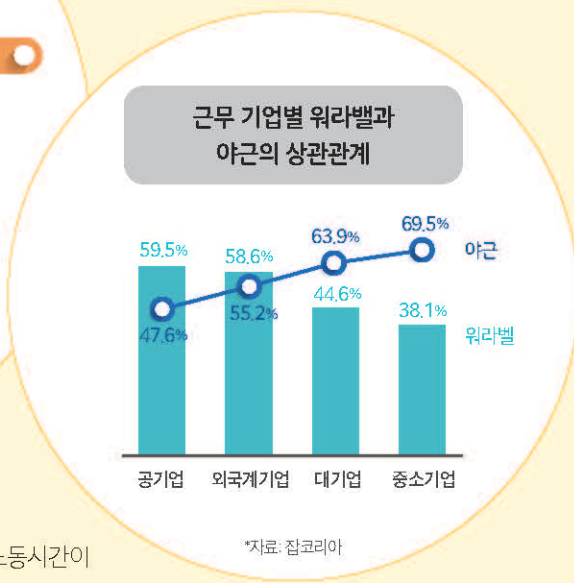
요즘 젊은 세대는 ‘올로’정신 아래 ‘가심비’ 좋은 소비를 지향하며, ‘소확행’을 추구하는 ‘워라벨’ 세대이다. 휴~ 점점 어려워진다고 좌절하지 마시라!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젊은 세대(80's 후반~ 90's 초반 生)는 기성 세대와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가치로 직장을 선택한다. 기성 세대가 오늘을 참고 인내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던 고도성장 시대(GDP 성장률 10% 이상이었던 8~90년대) 직장 생활을 해왔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장기 저성장 시대에 월급 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허황된 꿈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경제규모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시 고도성장 기간이 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멀고 막연한 장밋빛 미래보다 오늘의 소소한 행복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는 당연하게 여겨지면서도 가슴 한편을 묵직하게 한다.



대졸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 비율이 27.7%를 넘었다(2016년). 한쪽에서는 취업을 못해서 애달픈데, 다른 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4분의 1 이상이 1년 만에 퇴사한다고? 이런 비아냥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부모와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부모 세대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몇 년 방황해도 거뜼할 정도로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¹ 베이비부머 세대의 눈물 겨운 노력과 희생이 고도성장 시대를 만나 형성된 재산과 열성적인 교육열이 오늘날 켄거루 세대의 탄생에 기여한 면이 있다. 자녀 세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세상을 살게 하겠다는 부모 세대의 소망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그러나 회사와 동료 입장에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입 사원을 뽑고, 교육하고, 훈련하였더니 1년 안에 퇴사하면,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뽑고, 교육하고, 훈련하였더니 또 1년 안에 퇴사하면...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 두 통계에 그 실마리가 있다.



결국 워라벨과 근무시간 단축은 동의어는 아닐지라도 이웃사촌쯤 되어 보인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다(그래도 굳이 밝히자면, 우리는 독일 국민보다 1년에 4개월을 더 일한다고 한다). 이에 발맞춰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말근로 및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이른 퇴근에만 초점을 맞추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여유와 소통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기업만이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어떤 변화도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된다면, 여유 없는 직장 생활, 소통 없는 직장 생활의 연속일 것이다. 공간에서 인심 나뉘어 여유가 있어야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고, 두루두루 소통할 수 있어야 아이디어를 다듬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하여 기업은 정책(서류 없는 회사 만들기, 자유좌석제 등), 인프라(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화상·음성 회의 기술 투자 등), 인사(적정 인원 채용, 동료와의 협업을 권장하는 평가시스템 등)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임직원들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중복된 업무는 정리가 필요하며, 새로운 방식과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

성우하이텍의 비전이 계속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변화와 혁신이 더욱 중요한 지금이다. 🌈

1 1955~63년생의 평균 자산은 3억 9천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다(부동산 3억 3천, 금융자산 6천). 『명견만리』<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01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정시 퇴근하기,
가족·문화와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02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 시간 외 전화, 문자,
(단체)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03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사적인 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장시간 근무관행 바꾸기

04

똑똑한 회의

꼭 필요한 회의만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진행, 회의일정 안전
사전 공유

05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 왜, 언제까지,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보고서 방향 사전협의로
명확화

06

유연한 근무

업무의 질과 성과로
평가하는 문화 확산, 다양한
유연근무의 적극 도입 및
눈치 보지 않는 활용 유도
(시차출퇴근, 재량근무, 탄력근무, 원
격근무, 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07

똑똑한 보고

불필요한
대면보고 안 하기,
메모, 구두·영상보고
활용

일하는 방식 바꾸기

08

건전한 회식 문화

꼭 필요한 회식만,
일정은 사전에 공유,
문화 회식 활성화

09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 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10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부서장부터 장시간 근무,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바꾸기 실천, 직원과 근무
혁신 가치 공유하기

일하는 문화 바꾸기

길 따라 맛 따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로드

올해 상반기,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 단연 화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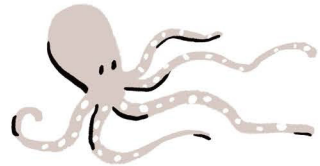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영자 씨의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리스트.

맛깔난 설명과 곁들인 먹방에 전국 휴게소는 난데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지나치는 여정 중 하나였던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가야 할 목적지로 탈바꿈시켰다는

이영자표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리스트. 만나볼까요?🚗

자료 및 이미지 출처: 한국도로공사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exhappyway>



1

서산휴게소(목포방향)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241
041-688-8814

2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방향)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
02-578-3372

3

안성휴게소(부산방향)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65
031-655-0531

4

금강휴게소(부산방향)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596
043-731-2233

5

천안삼거리휴게소(서울방향)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1길 42
041-551-2480

6

진천휴게소(부산방향)

경북 경주시 간천읍 경부고속도로 77
054-751-6890

7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하남방향)

경기 이천시 마장면 중부고속도로 82
031-630-0001

8

오수휴게소(광양방향)

전북 임실군 오수면 순천원주고속도로 73
063-644-6116



가평

진천

서울

인천

양평

서울 만남

마장

안성

서산

치악

13

14

15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순천원주고속도로

통영대천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 | | | | | | | | |
|-----------|---|-----------|--|-----------|---|-----------|---|
| 9 |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063-636-7195 | 10 | 산청휴게소(동영방향)
경남 산청군 단청면 통영대전고속도로 77
055-973-9036 | 11 | 보성녹차휴게소(목포방향)
전남 보성군 미량면 남해고속도로 63
070-4325-8801 | 12 | 섬진강휴게소(순천방향)
전남 광양시 진월면 신단길 24-14
061-772-7993 |
| 13 | 황성휴게소(강릉방향)
강원 황성군 안흥면 영동고속도로 154-1
033-342-4231 | 14 | 강릉휴게소(강릉방향)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232
033-648-8850 | 15 | 치악휴게소(부산방향)
강원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416
033-762-9234 | 16 | 안동휴게소(영남향)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타사로 1903-27
054-853-4370 |



1

서산휴게소(목포방향)
어리굴젓 배반

따끈한 쌀밥 위에 찹조름한 어리굴젓
올려 한입 먹으면 열매나 맛있게요!



2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방향)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가마솥에서 48시간 우려낸 담백하고
깊은 사골 국물 맛이 일품



3

안성휴게소(부산방향)
소떡소떡

쫄깃쫄깃한 떡과 짭짤한 소시지,
‘단질단질’은 사랑입니다♥



4

금강휴게소(부산방향)
금강 도리뱅뱅이 정식

고소하게 구운 민물고기와 매콤한
양념장의 조화



5

천안삼거리휴게소(서울방향)
해물볶음돈가스

바삭한 돈가스와 쫄깃한 해물,
매콤한 소스로 하나되다



6

건천휴게소(부산방향)
누구나 돌솥비빔밥

따로 양념해 고명으로 올린
재료 본연의 맛이 일품



7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하남방향)
이천쌀밥 정식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이천쌀밥과
밥도둑 반찬들이 꿀맛



8

오수휴게소(광양방향)
임실치즈철판비빔밥

철판 위에서 녹아든 임실치즈로
고소함 두배

9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
충남남원추어탕

꼭 삶은 미꾸라지와 구수한 우거지로
끓여낸 여름 보양식

10



산청휴게소(동명방향)
흑돼지김치찌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흑돼지와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의 환상 궁합

13



황성휴게소(강릉방향)
황성한우 떡 더덕 스테이크

두툽한 황성한우 스테이크에 입혀진
진한 더덕 향이 일품

14



강릉휴게소(강릉방향)
초당두부 황태해장국

비릿물로 간을 한 초당순두부와
뽀얀 황태국물의 깔끔한 조합

11



보성녹차휴게소(목포방향)
꼬막비빔밥

오동통하게 삶 오른 푸짐한 꼬막을
양념장에 쓱쓱 비벼 맛난 한입!

15



치악휴게소(부산방향)
곤드레나물영양밥

치악산에서 채취한 향 좋고 보드라운
곤드레나물밥의 건강한 맛

12



섬진강휴게소(순천방향)
청매실재첩비빔밥

새콤달콤한 매실 장아찌와 재첩,
섬진강이 내어준 푸짐한 한 그릇

16



안동휴게소(영남방향)
고등어정식

명인 간접이의 세월이 만들어낸
짭조름한 손맛

땀나게 내달리던 발걸음
잠시 멈추어두고
나를 더 단단히 채워주는
재충전의 시간
한 걸음,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국내

(주)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터,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주)아산성우하이텍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